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자) 대림 제4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12월 생활말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자) 대림 제4주일 ( 23. 12. 24. )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7,1-5.8c-12.14-16 ):

다윗 1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셨을 때이다.

2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3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4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5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 이냐?’

8 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9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10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11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 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 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12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6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6,25-27 ):

형제 여러분, 25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복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26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7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복음( 루카복음 1,26-38 ):

그때에 26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27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31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33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 미사 전례

### 본기도

주님,  
천사의 아림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 화답송

-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와 함께하시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의 희망을 찾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살피시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민족으로서의 관계를 놓지 않으며 남북이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몸소 함께하시어, 그들의 고통을 줄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는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살피시어, 모든 이가 차분한 마음으로 성탄의 참 뜻을 묵상하며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 ♪ 성가 ♪

- 입당 : 대림초점화 노래(주일학교)
- 봉헌 : 221(받아주소서)
- 성체 : 334(사랑의 성체성사), 498(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 :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 공지 사항

- ♣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박지숙 레아 자매님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12월 24일 성탄 행사 안내
  - 일시 : 24일 대림4주일 미사 후
  - 내용 : 12:30-12:50 미사 후 점심 준비  
12:50-14:00 점심 식사  
14:00-17:00 성탄 행사  
17:00-17:30 경품 추첨 및 시상식  
17:30-17:50 행사 정리 및 미사 준비  
18:00-19:30 성탄 전야 미사(구유 경배)

### ♣ 봉사자

	대림4주일 (24일)	전야미사 (24일)	성탄 낮미사 (25일)
제1독서	이승원 비오	허희숙 마리아	이경진 카타리나
제2독서	권혜림 세레나	박수정 클라라	안서현 안젤라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이가은 마리아판제아	정상현 안토니오 강한 프란체스코	강한 프란체스코 노부야 이초가티안
복사		변의용 베네딕토 정명룡 미켈레	박동현 요한보스코 강윤이 스텔라
계단·화장실	이승원 비오	허희숙 마리아	이경진 카타리나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91.85 • 교무금 € 300.00